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션 20,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체계 신학, 교회, 성례전, 기독교 생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체계 신학, 교회, 성례전, 기독교 생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체계적 신학에 대해 간략히 고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경 신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성경 이야기를 통해 연합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체계적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체계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 대해 배운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상기시키고, 의식이나 성례에 대해 뭔가 하고, 기독교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체계 신학, 교회에 대해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성경의 주요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연합과 교회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 저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즉 베드로는 그의 두 서신에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 번째 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제의 많은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았듯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연구에서 보았듯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울의 강의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글과 그의 사상에 대한 우리의 요약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의 교회 그림을 보았을 때, 실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를 바울의 주요 그림, 교회의 은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전이나 의식, 의식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만찬에서 세례를 받으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19, 20에서 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는 전도를 의미하며, 삼중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개종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찬, 1세기 유대인 유월절에, 그는 주의 만찬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례 신학의 윤곽 안에 위치시킬 것이다. 주로 바울에 대한 연구 덕분에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삶에서 행동하는 성례 신학을 고수한다. 말씀과 성례 사이의 유사점은 많은 도움이 된다.

세례와 성만찬은 의식 속에서 복음을 묘사하는 눈에 보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가 복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복음 메시지를 그가 교회에 준 두 의식, 즉 기독교 세례와 성만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증거, 가장 명확한 증거는 고린도 전서 11:23에 있는데, 바울은 만찬에 대해,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과 그리스도인 세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의식화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설교된 말씀과 세례와 성찬의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 교회에 복음을 은혜롭게 전하십니다. 저는 성례전이라는 단어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형태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말씀, 디모데후서 3:15,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연합될 때 구원할 수 있고, 성례전에도 효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은 세례와 용서를 연결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님의 만찬과 연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례전은 그 자체로, 즉 행위의 단순한 수행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취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성례전은 말씀이 구원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되거나 읽혀지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17,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거나 주님의 만찬을 받는 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 의식을 통해서든, 그는 또는 그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제정의 말씀과 함께 만찬을 지키면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님의 죽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26, 저는 23을 전에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의식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구원에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구원에 필요하고 성례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구원에 필요하지만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4-17에서 바울은 "나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하여 주께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중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파벌로 나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그들은 바울 그룹에 속했을 것입니다.

전파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처럼, 의식에 있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세례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정죄를 가져옵니다.

성찬을 받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27-32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약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약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병들고, 여러분 중 일부는 잠 을 잡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어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일시적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서, 제가 더 잘 이해하도록, 제대로 읽어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심판들이,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1:30, 약하고 병들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ESV는 이 비유를 잠든 또는 잠이 든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심판, 약함, 병,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강력한 약이지만, 여전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만찬의 메시지를 잘못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와와의 수직적 연합, 요소에 대한 믿음의 참여를 통해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수평적 연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회중에게 전달되는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사스러운 저녁 식사를 하고 동료들이 고린도에서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교제 식사인 아가페에서 굶주리게 두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내려 그들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설교와 의식 집행에서 주된 일꾼은 누구입니까? 모든 복음주의 설교자는 그가 단지 하나님의 대변인일 뿐이라고 단언할 것입니다. 대문자 P인 주된 설교자가 그를 통해 일합니다. 고린도후서 5:20장,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20장, 제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파생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의 대변인인 인간 전도자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설교를 멈출 것입니다. 하느님은 또한 성례전의 주요 목사, 대문자 M입니다. 세례를 주거나 주님의 만찬을 섬기는 인간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와 만찬에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만찬의 보이는 말씀에서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 충족될 때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성례전 행위를 단순히 행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의 성찬례에 대한 이해를 모두 거부합니다. 빵과 포도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수입니다. 대신, 초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푸신다. 성령은 승천하신 앉으신 그리스도와 충실한 참여자들 사이의 연결고리, 즉 연결고리이다. 성령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혜택을 믿는 참여자들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만찬은 그리스도가 믿는 참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매우 훌륭한 책에서 신클레어 퍼거슨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용문, 만찬에서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그의 사역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가톨릭, 대문자 C, *ex opere operato*, 단순히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은혜가 주어지고 복음주의적 기념주의적 만찬 이해에 사로잡힌 실수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며, 은혜는 실제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행정이나 단순히 우리의 기억의 활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관점, 그리고 마치 우리의 가장 높은 활동이 그를 기억하는 것인 것처럼 만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념주의 관점. 오히려 그는 영에 의해 요소를 통해 알려집니다. 만찬에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지역적으로 또는 믿음으로 성경에 임재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으로 임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또한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만찬에 임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요소에 싸여 있지 않습니다(행 3:21).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의 임재 안으로 인도되고 그는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저는 세례와 성만찬이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이며 심오한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세례와 성만찬이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면,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친교는 단지 세례의 반복일 뿐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세례에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의 초기 연합과 친교에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질문을 촉발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초기 연합이 불충분하고 증강이 필요한 것일까요? 만찬은 세례가 하지 못하는 무엇을 합니까? 여기서의 답은 세례에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의 단번의 연합이 강화되고 활력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칼빈, 저는 몇 번 전에 강의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에서 상징된 그리스도와의 단번의 영원한 연합은 믿음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강화되고 활력을 얻습니다. 이것을 용서와 비교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이지만,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매일 그에게서 용서를 받습니다.

결혼에 대한 예시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했고 오랜 세월 그들과 교제해 왔기 때문에 다시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 걸으면서 자라나는 평생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그의 아들과 영원히 합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걷고, 그의 뜻을 행할 때 그와의 관계가 커집니다. 칼빈의 견해를 요약한 매디슨은 간결합니다.

세례 성사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초기 연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성사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신자는 영양을 공급받고 유지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이 강화되고 증가합니다.

매디슨의 주님의 만찬에 대한 책이 여러분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체계적 신학의 마지막 측면은 그리스도교적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길을 따라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선거에서 부활까지 구원의 계획을 위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구원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실제적인 연합은 실제 사람들과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적용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우산이자 그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구원에서 그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기독교인 사이의 연합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포괄적이고 필수적이며 영구적입니다.

신자들은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과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내주합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재림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의 정체성이 온전히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 속함을 의미합니다.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구원에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는 그에게 영원히 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교제하는데, 이는 아내와 남편의 친밀한 교제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는 우리를 매우 사랑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특히 성령에 의해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 그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의 고통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고,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신비롭게도, 그의 은혜는 그들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고, 그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내합니다.

그 결과, 진정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믿음 안에 계속 머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고통을 겪었던 것만큼, 그들은 새 땅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소서. 바울 이후의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성경적 자료가 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간단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다룹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히브리서 3:14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자가 글을 쓸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래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료 또는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참여합니다.

히브리서 3:14에서 저자가 사용한 단어의 다른 예, 공유자 또는 참여자, 메타코이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여러분, 3:1.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 6:4. 모든 사람이 참여한 훈련, 12:8.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참여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의 인격과 사역에 참여합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원래 독자, 저자가 반복해서 시련의 상황에서 인내하라고 권고하는 히브리서의 원래 독자는 그렇게 하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경고 속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격려를 제공합니다. 6:9과 10:39를 보십시오. 그리고 3:14는 큰 격려를 제공합니다. 끔찍한

유혹과 죄의 강박한 영향으로 인해 기독교 마라톤을 그만두려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원래 확신을 끝까지 굳건히 지킨다면, 마치며, 인용하자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이 봉사를 위해 그에게 올 때 살아있는 돌로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 :4. 그들은 살아있는 돌과 접촉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고 새로 태어납니다. 1:2. 1:23.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돌들을 사용하여 믿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집을 짓습니다. 베드로전서 2:5. 베드로가 영적 성전으로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공동체적 연합이라는 사상을 전달합니다.

이전에 1:11, 4:13, 5:1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이야기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합니다. 이미, 인용문, 이미 당신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회복시키고, 확고히 하고, 강화하고, 확립하실 것입니다.

5:10.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따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받는 신자들이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10절. 영광과 함께 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중재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이해합니다. 베스트, 어니스트 베스트가 베드로의 메시지를 요약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해 그의 영광에 최종적으로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동료 장로이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자 5:1에서 드러날 영광에 참여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들에게 불타는 시련 가운데서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12. 그는 이 말로 서신을 마칩니다. 인용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평화가 있기를. 5:14. 바울과 비슷하게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독자에게 평화를 허락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독자들이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관계, 즉 그와 맺은 영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피터 데이비드는 베드로의 청중, 인용문, 그들의 좋은 생활 방식, 3:16, 그들의 미래 소망, 5:10, 그리고 그들의 현재 평화가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와의 정체성에 기인한다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세 번 사용한 것을 함께 묶습니다.

데이비드의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귀하고 매우 큰 약속을 통해 여러분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베드로후서 1:4).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의 구별을 없애지 않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쓸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우수성의 일부를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3절. 바로 다음 단어는 그의 해석을 확증합니다. 베드로는 최악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에 있는 부패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인용문 닫기, 4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도덕적 자질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도덕적 자질은 재림 때에만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겠지만, 지금도 내주하는 영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한 1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 많은 것을 다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연합에 대한 표현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연합에 대한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문맥상 영적 전쟁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것은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한의 독자들은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력한 승리자가 그들을 위해 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너희가 그들을 이겼으니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4절. 요한이나 그의 독자들은 스스로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신 업적과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의 임재로 인해 확실합니다. 요한이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할 때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강력한 이기는 임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보다 강하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더욱이, 이 정복하는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시며, 그의 전능한 임재를 통해

결국 승리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요한 1서는 두 번이나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4-6. 요한일서 5:20.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표현은 예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우리가 아들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 1서에는 구원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야브러의 말은 반복해서 인용할 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요한 1서가 묘사하는 바와 같이 아들을 통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안에 살고,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이미 Yarbrough에 대한 인용문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의해 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아들 안에 거하거나 그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상호 거하는 것에 대한 네 번째 복음서의 고귀한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는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연합에 대한 은유의 한 측면입니다.

야브러가 존의 편지에 대해 한 해설은 내가 언급한 로버트 야브러, 즉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존은 또한 거하는 면에서 연합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은 종종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도덕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2:6).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고 설명한다(3:6). 요한은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은 처음에 성령, 곧 그의 기름부음에 의한 신자들의 가르침에 첨부된다(2:27). 두 번째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킨다(2:28). 요한은 그들이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 가르침받은 진리를 고수한다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선포한다(요일 2:24).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이상의 신성한 인격 안에 계속 거한다고 말하는 유일한 때이다.

이 모든 것은 요한 복음에 거하는 것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의 확장과 적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야브러는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거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습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애착하는 것을 나타내는 요한 1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속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6과 28. 또는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24, 2:27, 3:9.”

Yarbrough, 1~3 John은 그의 주석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개인적 관계와 함께 우리가 위에서 관찰한 윤리적 의무가 옵니다. John은 쉬운 신앙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요한 1서는 윤리적으로 엄격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거하는 것이 상호적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와의 개인적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두 번 말합니다(3:24, 4:12). 네 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상호적이라고 말합니다 .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요일 3:24).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함을 아나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음이니라(4:13).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4:15).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4:16).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상호적이라는 네 가지 언급은 3:24, 4:13, 4:1
 5, 4:16입니다. 요한일서 3:24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상호 거함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요한
 복음에서 발견한 신성한 페리코레시스 또는 상호 내주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어떤 의미에서 공유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특권에는 윤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상호적 영속 언어와 도덕적 의무를 결합합니다. 상호적 영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해당합니다(요한일서 3:24).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4:15).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지속합니다(3:1
 4). 연구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요한의 연구와 분리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먼드 브라운이 인용했듯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동의어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안에 있다와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거의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 3:24과 4:12, 13에서 두 번
 언급합니다. 요한은 바울의 생각에서처럼 성령에게 큰 역할을 돌리지
 않지만, 요한 1서에서는 성령이 사소한 역할을 합니다.

위의 두 본문에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Yarbrough는 이 진리를 유익하게 강조하고, 저는 인용합니다. John과 그의 독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덕으로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합니다(2:18~3:8 참조). 이것은 John이 이미 3:24에서 한 진술과 비슷합니다. 성령은 연결 고리이자, 심지어 대리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상호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즉,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현존의 표시이며, 그들이 받은 메시지의 진실성과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은 윤리의 중요성을 확신시켜 줍니다(Yarbrough, 요한 1~3서).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몇 마디.

지옥에 대한 강력한 말과 14:9에서 12까지 신자들이 끈기 있게 버텨내라는 부름에 이어 요한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영원한 형벌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 중 일부는 여기 요한계시록 14:9에서 12까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형상을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요, 그의 눈의 잔에 가득 찬 술잔을 부을 것이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고, 짐승과 그 형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표나 그 이름을 받는 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말씀 후에 요한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이에 그는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인내,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것을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이 이르되, 참으로 복이 있도다,

영이 이르되, 그들이 수고에서 쉬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름이니라. 요한은 믿는 자들의 수고에서 쉴 수 있는 복된 안식과 (13절) 잃어버린 자들의 끝없는 안식의 부족을 대조합니다.

첫눈에 보면, 요한의 말은 당혹스럽습니다.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13절. 하지만 우리가 문장 전체를 숙고할 때쯤이면, 우리의 당혹감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문맥은 두 영역, 천국과 지옥,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과 천국, 그리고 그 거주자들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기쁨에 비추어 요한은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언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 안에서를 사용합니다.

비즐리 머레이는 정확히 요점을 짚었습니다. 인용문: 죽음은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에게 공포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과 부활로 그들을 위해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특별한 신자 집단을 표시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설명합니다.

이 글은 신자들의 장례식에서 자주 인용되는데, 로버트 마운스가 요한 계시록에 대한 해설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감사의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는 당신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위대한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아들 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주장하시고, 지금과 영원토록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체계 신학, 교회,
성례전, 기독교 생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계시록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